

宋代 運氣學에 관한 研究

尹 暢 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內容提要(Abstract)

本篇論文就宋代運氣學進行了研究, 并得出如下結論:

1. 自王冰將運氣七篇補入素問的762年開始, 至仁宗嘉祐2年校正醫書局開始校正醫書的1057年間的近300多年以來, 運氣學說對正統醫學界并未引起任何影響.
2. 據宋代有關記錄, 最早研究運氣的是仁宗時的郝允, 而他的弟子趙宗古則將郝允的“六元五運”繪之以圖, 獻給了朝廷, 這就成爲運氣學在世上得以傳播的契機.
3. 宋代運氣學的興盛, 始於校正醫書局將王冰素問本進行校正後用作大醫局的教材, 并將運氣學定爲選拔醫生的考試科目, 而得力於劉溫舒的《素問入式運氣論奧》的著成和徽宗皇帝對運氣學的篤信和大力普及, 所以“運曆”的公布和《聖濟經》及《聖濟總錄》的成書, 皆屬於此.
4. 宋代運氣學興盛的時代性和社會性的背景, 就象謝觀所主張的一樣, 乃是因於宋代學者作學問傾向於自由自在的氣氛, 還有在醫學的傳播過程中形而下學式的傳承被斷絕, 從而必然轉向虛無的五運六氣之說, 以上皆有參考價值.
5. 楊康侯在神通論中最初闡明了六氣的終始以大寒爲準的理論, 而沈括則主張運用運氣學說時, 不可固執定法, 當以常變之理能够變通才行的觀點, 這些都成爲運用運氣學說的重要理論.
6. 劉溫舒的《素問入式運氣論奧》繼承了運氣七篇的內容, 可以說這是詳細說明運氣學說的基本概念和基本原理的傑作, 所以成爲運氣學的典範, 對後世影響頗大.
7. 陳言的《三因極一病證方論》記述了治療因五運太過不及和六氣司天所引起的病證的十六首方劑和加減應用法, 雖嫌屬於泛泛之論且有缺乏變通的弊端, 但作爲將運氣學說推向處方用藥的運用方面則是具有重要的意義的.

1. 序 論

宋代는 中國歷史에 있어서 君主의 독재제도가 확립되고 과거제도를 통하여 많은 士大夫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한 시대이며 思想, 書畫, 詩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文化의 꽃을 피웠던 시대였다. 서기 960년 後周의 절도사였던 趙匡胤에 의해 건국된 宋나라는 唐代 절도사들의 폐해를 거울삼아 文治主義를 채택하였으나 國力の 약체화를 면치 못하여 1127년 金나라에 의해 북송이 멸망하게 되었고 欽宗의 동생인 高宗이 임안에 도읍을 정하고 南宋의 시

대를 열게 되었다. 南宋은 金과의 항쟁을 지속하면서 새롭게 흥기한 몽고족과 힘을 습하여 金을 멸망시켰으나 결국 몽고족의 元나라에 의해 1279년 王朝가 滅亡 하였다. 의학에 있어서 宋代에는 統治者들의 重視를 받아 당시까지 전해온 重要 醫書들이 校正, 刊行되었으며 本草書가 修正增補編纂되고 太平聖惠方, 聖濟總錄등과같은 대규모 醫方書가 刊行되었다. 그리고 運氣學說이 대단히 盛行하여 金元시대의 醫學流派의 出現과 이후 明·清代 醫學에 대하여 重要한 影響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는 宋代醫學의 重要한 특징중의 하나이다.

II. 運氣學 興盛의 原因

唐代에 王冰이 運氣七篇을 素問에 補入하고 注釋을 加한 이후에 運氣學說은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唐代 후기에 《素問六氣玄珠密語》, 《天元玉冊》, 《昭明隱旨》와 《元和紀用經·六氣用藥增損法》 등의 運氣學說을 다룬 專門書籍이 出現하였지만 醫家들에 의해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고 北宋의 前期에 이르기까지 300年間 運氣學說은 正統醫學界에 별다른 影響을 미치지 못하였다. 宋나라 初期 992年 太宗의 命에 의해 編纂된 大型 綜合性醫書인 《太平聖惠方》 가운데 運氣學說의 내용이 전혀 言及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運氣學說이 당시 醫家들의 重視를 받고 있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運氣學說이 宋代에 重視를 받게 된 重要 계기는 仁宗의 嘉祐에서 英宗의 治平年間(1057~1067)에 “校正醫書局”에서 王冰이 새롭게 編次한 24권본 《黃帝內經素問》을 全國에 校正頒布함으로 부터이다. 여기에는 “運氣七篇”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素問은 醫學經典으로 推崇을 받았고 이의 影響으로 運氣學說도 醫學에서 地位가 상승되었으며 醫界에 대한 影響도 확대 되었다. 게다가 北宋의 醫學學校인 太醫局 및 地方醫學學校에서도 王冰의 次注本 《素問》을 教材로 사용하였고 더 나아가 運氣가 醫師를 선발하는 試驗科目中的 하나가 됨으로써 모든 醫家들의 必須 과목으로 중시를 받았다. 北宋의 末年 運氣學說은 宋 徽宗의 篤信과 보급에 힘입어 흥성기로 진입하게 되었다. 徽宗은 運氣學說을 篤信하여 “造化必本之氣運”이라 생각하였고 運氣學說을 이해하고 있다면 “始可與議道之太常” “足以語造化之全功” “能已人之疾”이라 하여 運氣學說을 通曉하는 것이 天地大道와 養生治病을 파악하는 기본이 된다고 여겼다. 政和8年(1118年)의 《聖濟經》과 이후에 그의

名義로 편찬된 《聖濟總錄》은 運氣學說을 특별한 위치로 돌출시켰다. 이 뿐만 아니라 政和7年 부터 徽宗은 “公布次年運曆 示民預防疾病”의 詔勅을 내렸다. 이른바 “運曆”이란 運氣學說에 근거하여 만든 各年の 司天, 中運, 在泉之氣와 一年中 各步의 主運, 客運, 및 交司時刻, 그해 및 各步의 氣候, 物候와 病候특징, 그해의 養生方法, 疾病豫防法 및 病을 治療하는 飲食, 藥物 性味の 적당한 것 등과 관련된 曆法이다. 동시에 徽宗은 “天運政治”를 추진하여 매달 各月の “月令”(政和7年 10월에 처음 頒布)을 公布하였다. “月令”의 기본내용의 하나는 各月の 運氣 및 氣候, 物候, 病候 특징 및 疾病을 豫防하고 治療하는 藥, 飲食의 性味宜忌등이다. “月令”을 公布한 것은 “示民預防疾病”의 意義를 갖추고 있다(月令中에는 또한 政治, 法律, 祭祀, 生産등에 관한 내용도 있다)

各年の “運曆”과 各月の “月令”은 皇帝가 “布告中外 咸使聞知” “其令諸路監司郡守行詔以聞”하라고 詔令을 내렸기 때문에 이 조치는 全國의 醫學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運氣學說의 知識을 전파하고 보급하는 계기가 되어 運氣學說의 影響과 應用은 이에 이르러 最盛期를 이루게 되었다.

宋代에 運氣學說이 盛行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劉溫舒에 의해 《素問入式運氣論奧》가 지어짐에 기인한다. 이冊은 哲宗 元符2年(1099)에 완성되었는데 運氣學說중의 基本概念과 基本原理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冊은 《玄珠密語》나 《天元玉冊》처럼 立論이 편벽되거나 雜駁하지 않고 대단히 醇正하다. 그리고 占卜과 災祥의 내용도 실려 있지 않다. 《運氣論奧》는 運氣7篇의 기본정신에 忠實하고 7편의 내용을 闡發하여 이해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冊은 後世에 대한 影響이 상당히 커서 運氣學史 뿐만 아니라 醫學史에서도 重要한 運氣學 專門書籍이다¹⁾.

陳邦賢도 그의 中國醫學史에서 이 책에 대

해 “宋代在醫學書中言五運六氣最早的 是1099年(宋哲宗元符二年)劉溫舒著素問入式運氣論奧從此運氣之說便盛行了”라 하여 運氣論奧의 저작이 運氣學說 성행의 주요 原因이 됨을 기술하고 있다.

謝觀은 《中國醫學源流論》에서 中國의 醫學이 宋代에 이르러 新說이 肇興한 것은 必然의인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는 萬事萬物이 반드시 그 사이에는 理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理致를 터득해야만 무궁하게 응용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古代로부터 전해 내려온 醫學이 魏晉 이후로는 제대로 전해오지 않아 무엇에 의거해 理致를 탐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學術之眞은 必存於事物이나 後世解剖之學이 既已絶迹하고 形下之學이 又日湮晦하니 欲明醫理나 果何所據以資推求哉아. 於是에 冥心探索하여 其說이 轉遁하여 入於虛無而五運六氣之說이 興矣.(學術의 참모습은 반드시 事物안에 존재하나 後世의 解剖學은 이미 자취가 끊어졌고 形下之學은 날로 사그러지고 자취를 감추었으니 醫學理致를 밝히고자 하나 과연 무엇을 根據로 삼아 추구할 것인가. 이에 깊이 생각하고 研究하여 그 學說이 방향을 바꿔 숨어들어 虛無한데로 들어가 五運六氣說이 발흥하게 되었다)”²⁾고 하였다. 이는 宋代 運氣學說의 흥성이 形而下學이 사라진 醫學界에서 形而上學의인 방향으로 옮겨간 것은 필연적이라는 老醫學者의 大家다운 觀點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宋代의 運氣學說의 성행을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宋代에는 統一王國이 세워지고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學者들은 傳統的인 學文만을 墨守하지 않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人間과 宇宙의 根本과 本質을 탐구하였다. 이것이 宋代 性

理學 출현과 발전인데, 같은 맥락에서 自然界의 氣候를 지배하고 인간의 疾病을 총괄하는 運氣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社會的 분위기와 잘 맞아 떨어지게 되었다. 성리학자들은 현실을 지배하는 질서의 本質을 탐구하였고 의학자들은 현실의 질서를 중시하여 疾病의 豫防과 治療에 활용하였던 것이다. 성리학자들은 내면성의 本源을 추구하여 이를 性, 理, 太極등이 窮極의인 根源이라 하였고 의학자들은 現實의 本質은 五運과 六氣가 結合하여 現實의 變化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陳邦賢도 五運六氣 學說의 興起가 당시 哲學界가 理學을 重視한 것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宋代의 士大夫들은 醫學과 運氣學說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運氣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한 학자로는 沈括이 있다.

III. 沈括의 運氣에 대한 인식

沈括(1031~1095)은 北宋時代의 뛰어난 科學者요 政治家로써 字는 存中이고 號는 夢溪이다. 그는 杭州에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한후 熙寧初에는 王安石의 變法을 돕기도 했고 관직은 翰林學士 龍圖閣待制와 坐議城永樂事에 까지 이르렀다. 말년에는 潤州 夢溪園(지금의 鎮江市 부근)에 머물면서 《夢溪筆談》등을 지었으며 《蘇沈良方》이란 의서도 저술하였다.

먼저 夢溪筆談 象數에 실려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醫家有五運六氣之術하니 大則候天地之變과 寒暑風雨와 水旱螟蝗이 率皆有法이오 小則人之衆疾도 亦隨氣運盛衰라 今人不知所用 而膠于定法하니 故其術이 皆不驗이라 假令厥陰用事엔 其氣多風하니 民病濕泄이나 豈溥天之下가

1) 李經緯 林昭庚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0. pp335~336

2) 謝觀 中國醫學源流論 臺北 進學書局 1970. pp15~16

皆多風하야 溥天之民이 皆病濕泄耶아
 至于一邑之間이라도 而暘雨有不同者하
 니 此氣運은 安在오 欲無不謬나 不可得
 也라 大凡物理는 有常有變하니 運氣所
 主者는 常也오 異夫所主者는 皆變也라
 常則爲本氣오 變則無所不至 而各有所占
 이니 故其候有從 逆 淫 鬱 勝 復 太過
 不及之變하야 其發이 皆不同이라 若厥
 陰用事에 多風而草木榮茂면 是謂之從이
 오 天氣明契하야 燥而無風을 此之謂逆
 이오 太虛埃昏하야 流水不冰을 此之謂
 淫이오 大風折木 雲物濁搖를 此之謂鬱
 이오 山澤焦枯 草木凋落을 此之謂勝이
 오 大暑燔燎 螟蝗爲災를 此之謂復이오
 山崩地震 埃昏時作을 此之謂太過오 陰
 森無時 重雲晝昏을 此之謂不足이니 隨
 其所變하야 疾癘應之라 皆視當時當處之
 候라 雖數里之間이라도 但氣候不同 而
 所應全異하니 豈可膠于一定이리오 熙寧
 中에 京師 | 久旱이어늘 祈禱備至 連日
 重陰이라 人謂必雨라하야늘 一日驟晴하
 야 炎日赫然이라 予時因事入對할새 上
 問雨期어시늘 予對曰 雨候已見하니 期
 在明日이니이다하니 衆以謂頻日晦溽이
 오도 尙且不雨어늘 如此暘燥에 豈復有
 望이리오하니라 次日果大雨하니라 是時
 濕土用事하니 連日陰者는 從氣已效나
 但爲厥陰所勝하야 未能成雨오 后日驟晴
 者는 燥金入候니 厥陰當折 則太陰得伸
 하니 明日運氣 | 皆順이라 以是知其必
 雨라 此亦當處所占也라 若他處候別이면
 所占亦異니 其造微之妙는 聞不容髮이라
 推此而求면 自臻至理하리라3).

醫家에는 五運六氣의 法術이 있다. 크게 보
 면 천지의 變化, 寒暑風雨, 水旱蝗災 같은 것
 들이 대체적으로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음을

알아내는 것이고, 작게 보면 사람의 각종 질병
 도 기운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은 그것의 작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고답적인 방식에만 매
 여있다. 그러므로 그 法術은 효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厥陰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것의 기는 풍이 많아 백성들은 腹瀉病을 앓
 게 된다. 그런데 어찌 천하에 바람이 많다고
 하여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腹瀉病에 걸린다는
 말인가! 심지어 같은 성읍 속에서도 맑고
 비오는 곳이 다른데 그들의 기운은 어디에 있
 다는 말인가! 오류를 없애고자 하나 방법이 없
 다. 대체적으로 말해 사물의 이치에는 常과 變
 이 있다. 運氣가 주도하는 것은 常이고 運氣와
 다른 것은 變이다. 常은 本氣이고 變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하지만 모두 각각 징조가 있
 다. 그러므로 기후는 從·逆·淫·鬱·勝·
 復·太過·不及의 변화가 있어 그 발생하는
 것이 모두 서로 같지 않다. 만약에 厥陰이 用
 事할때 風이 많아 초목의 생장이 번성하게 되
 는데, 이를 從이라고 한다. 그리고 날씨가 화
 창하고 건조하여 바람이 없는 것을 逆이라 부
 른다. 또 하늘에 먼지가 날려 어둡고 물이 흘
 러 결빙이 되지 않는 것을 淫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大風이 초목을 부러뜨리고 구름이 뭉
 쳐있으며 떠다니는 것을 鬱이라고 한다. 그리
 고 산과 못이 고갈되고 초목이 凋落하는것을
 勝이라고 하며, 무더운고 매마르는데 매뚜기들의
 재앙이 닥치는 것을 復이라고 한다. 또 山崩地
 震에 때때로 먼지가 나는 것을 太過라고 하며,
 하루종일 음산한 날씨에 구름이 층층이 끼여
 있으며, 대낮이 어두운 것을 不及이라고 한다.
 이러한 變에 따라 각종 유행병들은 상응하여
 발생한다. 이는 모두 當時 當地의 徵候에 근거
 하는 것이다. 몇 리 내에서도 기후만 다르면
 상응하는 현상은 전혀 다른데, 어찌 고지식하
 고 상투적인 이론에만 매여 있겠는가! 熙寧 연
 간에 경도인 卞梁은 오랫동안 가뭄이 심하였

3) 任應秋 運氣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p10~11

다. 귀신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모두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며칠간 매우 흐린 날이 지속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비가 오리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날이 개며 타는듯한 태양이 하늘에 나타났다. 나는 당시에 일이 있어 조정에 갔는데, 皇帝께서 내게 비오는 날을 물었다. 나는 답하길, '비가 올 徵兆가 이미 보였으니, 내일 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라고 하였다. 좌우의 대신들은 모두 며칠간이나 음산하고 축축한 날씨였는데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건조하고 빛이 따가운데 어찌 그런 희망을 가지느냐고 반문하였다. 그 다음날, 과연 큰 비가 내렸다. 당시는 太陰의 土運이 用事를 했고 연일 흐린 날이 지속된 것은 從氣(太陰濕土)는 이미 드러났지만, 厥陰風木에 의해 견디지 못해 비로 능히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다. 나중에 갑자기 날이 맑은것은 陽明金運이 진입한 징조로서 厥陰木運이 꺾어지면 太陰土運이 그로써 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다음 날의 運氣가 모두 순용하였기에 반드시 비가 오리라 확신한 것이다. 이 또한 그 현지에서 추론한 것이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기후가 달랐다면 추론한 결과도 전혀 달랐을 것이다. 그 중의 정미하고 오묘한 부분은 터럭만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에 의거하여 추론하면 자연히 지극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沈括은 運氣學說을 통해 天地의 變化, 氣候의 變化, 가뭄, 洪水 蟲災등을 관찰할 수 있고 사람의 疾病도 여기에 예측되지만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은 기계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常과 變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常은 正常的이고 規律的인 變化이고 變은 異常的이고 特異的인 變化이다. 沈括은 氣候 및 病候의 出現에는 常과 變이 있어 運氣가 결정하는 것은 規律성의 기후변화이고 이 밖에 또 특이성의 변화가 있으므로 運氣學說을 응용할 때에

는 定法만을 집착하여 變通을 몰라서는 안되고 그 때와 그 지역의 구체적인 氣候, 病候를 결합하여 判斷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는 운기학설을 운용할때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참고할 가치가 크다.

IV. 運氣가 醫學考試의 한 과목이 됨

宋 仁宗 嘉祐 年間に 校正醫書局에서 素問이 校正刊行된 이후에 이 冊은 太醫局의 正式 教材가 되었고 林億 등이 王冰이 補入한 七篇大論을 “竊疑此七篇 乃陰陽大論之文”이라 하고 “古醫經”이 됨을 承認하자 七篇의 大論은 醫經의 地位를 확보하였다. 太醫局은 新校正한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을 正經으로 삼자 運氣도 자연스럽게 太醫局 學生들의 필수 과목이 되었다.

《元豐備對》《太醫局諸科程文》의 記錄에 의하면, 太醫局九科 ……考試科目 計分六種이라고 하였다. 一 墨義는 암기를 시험하는 것이고, 二 脈義는 察脈을 시험하는 것이고, 三 大義는 天地之奧와 藏府之源을 試驗하는 것이고, 四 論方은 制方佐使之法을 시험하는 것이고, 五 假令은 證候方治를 시험하는 것이고, 六 運氣는 一歲의 陰陽과 人身感應의 理致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運氣는 法定의 형식으로 醫生들 가운데에 주입되었으며 醫師들로 하여금 學習하고 研究 運用하게 하였다.

政府의 제창으로 運氣는 醫學界의 지위가 크게 높아졌으며 당시에 流傳되었던 俗諺인 “不讀五運六氣 檢遍方書何濟”는 政府가 醫師들에게 반드시 運氣를 학습할것을 요구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⁴⁾.

4) 王琦等著 運氣學說的研究與考察 北京 知識出版社 1989 pp231~232

다음은 太醫局考試程文(程文은 과거의 고시장에서 쓰는 일정한 法式이 있는 글이다)에 있는 내용을 현토만 하여 소개하여 그 대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問이라 甲子年五運六氣所在와 所宜處方으로 爲對하라

對라 太極未判之先엔 則名爲濕沌이오 太極既判之後엔 則氣有陰陽이라 清陽上積하야 以爲天하고 濁陰下辟하야 以爲地니 寒暑燥溼風火가 由是而布於穹隆하고 木火土金水火가 於斯而列於磅礴이라 五運은 經橫於氣交하고 至神은 宰制於橐籥이라 司天在泉者는 卽年辰而可考오 統運主氣者는 自支干而乃明이라 陽年則爲於太過니 應陽道而常饒하고 陰年則爲於不及이니 應陰道而常乏이라. 或天與運符면 而謂之天符오 或歲與運會하면 而謂之歲會오 苟三合平治之年은 爲太一天符之紀라 其平和也는 則德化政令이 及於物而應於人하고, 或過減也는 則勝復盛衰가 及於人而見於物이라 要當察其所在而施於藥物하고 審其所宜而施於方治라 和其運而調其化하고 折其鬱而資其源이니 高者抑之하야 而不致於太盛하고 下者舉之하야 而不致於太衰하야 使上下而無相奪倫하고 俾氣運而得於平治라 自非聖人이 存仁民惻隱之心하야 更相問難하야 著而爲書면 則歲之氣運을 何自而明이며 調之正味를 何自而知矣리오 考之內經컨대 有曰「先立其年하야 以明其氣」라하니 令觀甲子之年컨대 甲爲諸干之先故로 天氣始於甲하고 子爲衆支之首故로 地氣始於子라. 子甲相合하야 而歲紀始立하니 君臣答問에 而氣運方明이라 是歲也는 上見少陰君火之司天하고 中行大宮之土運하고 下臨陽明燥金之在泉하야 以陽干이 復遇於陽支하야 兩陽相配故로 有太過之年이라. 經曰「陽年爲太過」라하니 正此謂也라 土運

有餘를 名曰厚阜之紀라 經曰「厚阜之紀는 是謂廣化니 厚德清靜하고 順長以盈하야 至陰內實하고 物化充成하야 煙埃蒙鬱이 見於厚土라. 大雨時行하야, 溼氣酒用하고 燥政酒辟이라. 其化園이오 其氣豐이오 其政靜이오 其令周備오 其動濡積并穡이오 其德柔潤重淖이오 其變震驚飄驟倒潰오 其經足太陰陽明이오 其臟脾胃오 其病腹滿과 四肢不舉라하니라」 大風迅至하면 邪傷脾也니 詳此之歲컨대 酒同地者는 溫熱化宜하니 用溫熱之藥하야 治其一歲之過愆이라. 夫天氣運動而不息則爲之客이오 地氣鎮靜而守位則爲之主오 左右間氣以顯於其間하고 上下加臨하야 必布於其內라. 且初之氣는 自癸亥年大寒節寅初一刻交入하야 甲子年初之氣分終六十日 而餘八十七刻半 至春分日子丑時夜半止하니 上見太陽寒水爲之客하고 下臨木位爲之主라. 地氣遷에 燥將去하고 寒酒始에 蟄復藏하야 水酒冰하야 霜酒降하고 風酒至에 陽氣爵이라 民酒周密이니 關節禁固하며 腰脰痛이오 炎暑將起하면 中外瘡瘍이니 宜用甘熱之藥治其氣爾라. 二之氣(이하 생략) . . . 三之氣 . . . 四之氣 . . . 五之氣 . . . 終之氣 . . . 由是抑其運氣하고 資其歲勝하야 折其鬱發하고 先取化源하면 使暴過不生하고 苛疾不起라. 治六氣之藥은 已布於前하고 調一歲之方은 今附於後라.

治甲子年五運六氣正一輔二奇方附子湯이라 附子爲正이니 味辛甘溫하고 大熱有大毒이라 生犍爲山谷及廣漢이오 地胆爲之使라 惡蜈蚣하고 畏防風黑豆甘草黃耆人蔘烏非니 炮微裂去皮臍라고 用一兩하고 剉라. 乾薑爲輔니 味辛溫하고 大熱無毒이라. 生犍爲山谷及荊州揚州오 秦椒爲之使라 惡黃芩黃連天鼠糞이니 炮微裂이라 用半兩하고 剉라. 朮爲輔니 味苦甘하고 溫無毒이라. 生鄆山山谷漢

中南鄭이오 防風地榆爲之使라 用半兩하고 剉라. 右三味咬咀하고 每服三錢호매 水一盞半에 煎至八分이어든 去渣溫服호매 不拘時候라. 謹對하노이다미.

위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상투적이어서 실제 응용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V. 중요 運氣關聯 書籍

1. 概況

宋代에 運氣를 연구한 사람들로는 郝允, 龐安常, 沈括, 楊子建, 劉溫舒 등이 있었고 寇宗奭의 本草衍義, 趙佶의 聖濟經과 聖濟總錄, 陳言의 三因方 등은 이 學說의 影響을 받아 지어진 冊이며 모두 이 學說을 推崇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運氣學說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으나 丹波元簡은 醫剩에서 “后及宋劉溫舒 沈括 楊子建輩篤信之 하여 精詣其理하여 各有所發明이나 而當時西州楊吉老 嘗謂黃魯直曰 五運六氣는 視其歲而爲藥石이니 雖仲景이라도 猶病之也라하니 此言極是라. 伊川朱子 亦嘗論其淺近焉이라”⁶⁾ 하여 당시에 楊介(字吉老) 등이 이를 반대했음을 밝히고 있다. 郝允은 博陵(지금의 河北省 定縣 蠡懸일대) 사람으로 內經에 注釋을 加하여 《素問箋》이란 책을 저술하였다. 醫部全錄의 醫術名流列傳에서는 “歲常候測天地六元五運하여 考四方之病하고 前以告人에 亦無失이오 皇祐年에 翁死”⁷⁾

라 하였다. 皇祐年은 仁宗때의 연호로 1049년에서 1053년까지가 되므로 기록적으로는 宋代에서 運氣를 연구한 최초의 인물이 된다. 그의 醫術은 太醫 趙宗古에게 傳授되었는데 趙宗古는 太醫局 太醫를 지냈고 名醫 郝允의 “六元五運”法을 그림으로 그려 朝廷에 바쳐 세상에 퍼지게 했다고 한다⁸⁾. 楊康候(字 子建, 號 退修)는 神通論을 지었다. 鄧焘이 저술한 運氣新書의 吳澄의 서문에서 大寒은 “爲次年初氣之首也니 此造化之妙라 內經秘而不發하고 啓玄子闕而不言이나 近代 楊子建 昉而推而得之”⁹⁾라 했고 또 曹大本이 지은 運氣考定의 吳澄의 序文에 大寒節로 六氣의 終始之處로 삼는 것에 대해 “後見楊子建神通論 이라가 乃知其論이 已先於子¹⁰⁾” “子建以歲氣起冬者는 冥契先天始震終坤之義”¹¹⁾라 하여 楊子建이 運氣에 정통했었고 그가 지은 神通論에서 大寒이 六氣의 終始點이 됨을 처음 밝혔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中國醫籍考에 있는 宋代의 運氣關聯 書籍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藍先生闕名 素問入式鈐] 例文略一卷 佚

[亡名氏 三甲運氣經] 藝文略三卷 佚

[趙氏從古 六甲天元運氣鈐] 舊缺撰人名氏 今據宋志訂補 藝文略二卷 佚

[亡名氏 五運六氣玉鎖子] 藝文略三卷 佚

[劉氏溫舒 素問論奧] 藝文略四卷 讀書後志作三卷是

[馬氏昌運 黃帝素問入式祕寶] 宋志七卷 佚

[陳氏蓬 天元祕演] 宋志十卷 佚

5) 劉伯驥 中國醫學史上冊 臺北 華岡出版部 1974 pp279~281

6) 陳存仁編校 皇漢醫學叢書 13 丹波元簡 醫剩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15

7) 陳夢雷勅纂 醫部全錄 20.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9 p170

8) 洪元植著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7

9)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93

10) 상동

11) 상거서 p1094

- [葉氏玠 五運指掌賦圖] 書錄解題一卷 佚
 [亡名氏 運氣圖解] 一卷 存
 [鄧氏焱 運氣新書] 佚
 [曹氏大本 運氣考定] 佚

2. 劉溫舒의 素問入式運氣論奧

宋代에 運氣學說이 성행하였지만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빈약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히고 통속적인 運氣學 서적이 세상에 出現하였는데 이것이 곧 劉溫舒의 《素問入式運氣論奧》이다.

劉溫舒는 宋史에 列傳이 없어 生卒年代를 확실히 고증할 수 없다. 本書의 卷頭에 “朝散郎太醫學司業劉溫舒撰”이라고 한 것을 근거하면 일찌기 北宋 太醫局의 醫官이었음을 알 수 있고, 書末에 “元符己卯歲丁丑月望日序”에 근거하면 이 책이 元符二年 즉 1099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는 沈括이 세상을 떠난지 수년이 지났으므로 그 학술활동 시대가 沈括보다는 늦고 龐安時(1042~1099)등과 대략 同時代 임을 추측할 수 있다.

《素問入式運氣論奧》는 運氣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入門의 發판을 마련해 준다. 作者의 自序中에 이르기를 “醫書者는 乃三墳之經”, “其道玄妙하여 不易窮研이라 自非留心刻意면 豈達玄機리오 且以其間에 氣運이 最爲補瀉之要”라고 하였고, 素問原書中에 “雖備見黃帝與岐伯鬼臾區問對”나 “粉糵篇章하여 卒無入法하여 稍難使用이라”고 하여, 作者가 “筆筆斯文한데 久已盈軸이라 莫不究源附說하여 解惑分圖하며 括上古運氣之秘文하여 撮斯書陰陽之精論”하여 “箋明奧義에 咸有指歸”라고 하였다. 또 그 文章은 “詎飾文辭리오 庶易曉悟니 使覽者 經目이면 頓知妙道가 幾過半矣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本書는 내용이 깊으면서도 이해

하기가 쉽고 通俗의 으로 풀어진 著作이다. 全書는 모두 三卷이며 三十一論으로 나뉘어져 있고, 運氣學說의 名詞, 術語, 構成의 뜻과 由來를 나누어 論술하였는데, 예를 들면 十天干, 十二地支, 五行生克順逆, 六氣六化, 納音, 日刻, 月建, 四時氣候, 六氣標本, 五行生成數 및 主氣, 客氣, 客主加臨, 天府歲會, 南北政, 九宮分野, 五行勝復, 手足經, 六病, 六脈, 證治 등등 망라하지 않은 것이 없다. 또 상술한 문제를 표제로 삼아 하나씩 분석하였다. 이 책은 우선 圖表로 뜻을 해석하여 七篇大論중 많은 양의 문장서술을 간단한 도표로 만들어 표시하여 일목요연하게 하여, “經目頓知妙道”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방법은 줄곧 후세에 運氣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沿用하였다.

本書의 成果는 주로 “究源”과 “解惑”의 두 가지 相補相成방면에 있다. 究源은 運氣理論과 구성의 유래를 추구한 것이고, 解惑은 運氣學術중의 疑難문제를 푼 것이다. 唐에서 宋까지 運氣를 천술한 名인이 여럿 있었지만 모두 그 格局을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에만 착안하여 格局의 이론근거를 끝까지 파고 드는 자는 비교적 적어서 신비하고 공허한 감을 면하지 못했다. 初學者들이 갖는 運氣의 疑惑은 바로 그 근원을 밝히지 못하는데에 있었던 것이다. 劉溫舒는 素問의 陰陽과 五行에 관한 상세한 論술을 운용하여 자연계중의 모든 사물, 크개는 天地로부터 작개는 草木蟲魚, 사람의 生老病死에 까지 모두가 陰陽의 相互感召과 五行生克의 산물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陰陽消長之氣와 五行生克順逆之理를 파악하는 것은 자연계를 인식하는 근본방법인 것이다. 論奧卷上에서 十二支를 논하면서 이르기를 “五行의 相生相克은 其理昭然하니 十干十二支와 五運六氣와 歲月日時가 皆自此立하여 更相爲用하나니라 在天則爲氣니 寒暑燥濕風이오 在地則成形하나니 金木水火土오 形氣相感而化生萬物하나니 此造化生成之大紀也니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三陰三陽은 天地六氣니 標也오 水火木金土는 地之五行이니 木也니라 生長化收藏이라 故로 陽中有陰하며 陰中有陽하니 動靜相召하며 上下相臨하며 陰陽相錯而變所由生也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陰陽五行이라는 造化生成의 大紀를 파악해야만이 각종사물과 형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運氣學說은 古人들이 자연계의 객관적인 규율에 대하여 인식하고 묘사한 것이다. 論奧卷上에서 四時氣候를 논하면서 이르기를 “日月運行而四時成할새 以其有常也라 故聖人이 立法以步之하시오 陰陽相錯而萬物生할새 以其無窮也라 故聖人이 指物以候之라 其六氣終始早晏과 五運太少盈虛를 原之以至理하고 考之以至數하야 而垂示萬古하시니 無有差忒也”라고 하였다. 生成數를 論하면서 이르기를 “天高寥廓에 六氣回施以成于四時하고 地厚幽深에 五行生化以成于萬物하니 可謂無窮而莫測者也라 聖人이 立法以推步者 蓋不能越其數”라고 하였다. “立法以推步”는 五運六氣法을 세워 기운의 변화와 만물의 生化를 推算한다는 것이다. 十二支에서는 이르기를 “清陽爲天이니 五行彰而十干立하고 濁陰爲地니 八方定而十二支分이라 運移氣遷하니 歲歲而盈虛應紀하고 上升下降하니 物物而變化可期니 所以支干結合하야 共臻妙用”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干支를 결합하여 氣運變化의 원인을 나타냄을 밝혔고, 原書는 天干과 地支에 대한 文字訓解를 통하여 運氣學說에서 天干과 地支가 運氣를 推算하는 부호가 되는 필연성을 논증하였다. 또 天干과 地支의 약간의 서로 다른 配合는 자연에서 그 法을 취한 것이며 자연계의 객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論生成數에서 계속해서 指摘하기를 “觀其立數之因컨대 亦皆出乎自然이라 故載于經典에 同而不異하니 推以達其機하고 窮以通其變하면 皆不離乎數內”라고 하였다. 運氣의 “立數之因”이 “皆出乎自然”이라고 하였듯이 劉溫舒는 運氣理論과 구성의 유래를 명확하게 해석하였고, 運氣

學說의 신비감을 깨뜨렸는데, 매우 강한 說得力을 갖고 있는 것이다.

本書의 構成方面에서의 特徵은 문제를 標題로 삼아 名詞와 術語를 먼저하고 이론과 형식을 다음으로 하며, 다시 人體經絡, 疾病과 관련시켰으며, 마지막으로 질병의 治則上으로 귀결시켰다. 篇末에서는 문답의 형식으로 元豐四年辛酉, 즉 1081년의 기후상황과 運氣로 推算한 것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실제로 분석하였고, 運氣를 淺視하는데에 反對하였으며, 運氣 淫鬱勝復의 이치와 運氣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시범적으로 설명하여 이론과 실제의 통일을 추구하였다.

《文獻通考》에 이르기를 이 책은 일찌기 上于朝라고 하였다. 論奧一書가 疑難문제를 중심으로 삼았고, 言語가 평이하며 明白하고, 劉氏 자신이 “太醫學司業”의 職分이었음을 분석한다면 이 책은 劉氏가 太醫局學生들을 위해서 강의할 적에 反復增刪하고, 강한 내용을 “久以盈軸”하여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책이 만들어진 후에 上于朝하여 太醫局學生들에게 널리 전파되었을 것이다. 본서는 사실적으로 運氣를 해석하는데 특별한 공헌을 하였으며, 이 책에서 運氣에 대한 많은 해석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運氣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沿用되고 있다¹²⁾.

요약컨대 素問의 運氣7篇은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浩繁하고 복잡하며 이론이 고매하여 일반 사람이 접하기에 너무나 힘들었다. 이에 劉溫舒는 運氣7編의 基本理論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하고 계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면서 圖解를 덧붙여 의문을 해소하였다. 이 책은 또한 六氣爲病, 脈診, 治則등의 내용까지를 깊이 연구하여 臨床에서 運用하는데도 편리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이 책은 運氣學이 “學者寡而知者鮮”하던 상황을

12) 王琦等著 상계서 pp232~235

타과하고 세상에 성행하게 하는데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3. 聖濟經과 聖濟總錄

劉溫舒가 上書한 이듬해말(1100년 11월)에 徽宗 趙佶이 즉위하였다. 徽宗은 運氣를 숭상하고 믿었는데, 일찌기 《聖濟經》을 친히 제작하여 醫道를 밝혔다. 이 책은 모두 十篇四十二章이고 陰陽五行, 受形胎孕, 衛生長養, 診脈辨證, 藥理方劑 및 運氣攝生 등의 항목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술하였다. 그 중에 第五篇에서는 運氣를 전문적으로 논술하였다. 먼저 運氣와 天地萬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이치를 논하였는데, “論造化에 必本之氣運者는 盖天職生하니 覆穹然而剛健하고 地職形하니 載隕然而止靜이라 運以統歲에 布化而遞遷하니 相感相召而損益著하고 生生化化而彙彰”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人類를 포함한 천지만물이 五行之氣를 稟하지 않고 生한것이 없으며, “五行之氣는 上應五星하고 內徹五臟”하므로 “歲運更治에 盈虛相從”하여 사람을 養할 수도 있고, 또한 피해를 줄수도 있는 것이다. 醫師가 환자의 病所와 虛實의 所起를 알려면 반드시 運氣에 주의해야 한다. 文章은 계속해서 간결한 언어로서 運氣와 유관한 내용을 闡述하였는데, 五運分治, 六節氣位, 氣運加臨, 亢害承制, 九州災眚, 氣運爲病, 五味補瀉, 間穀歲穀, 神機氣立 등등을 모두 논술하였다. 말이 간결하면서도 핵심이 있고 뜻이 넓으면서 이치가 분명하였다. 특별히 지적할만한 것은 醫師들이 運氣를 熟知해야할 필요성을 문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는 運氣를 알지 못하면 “不可與語造化之全功”, “不可與議道之太常”이지만, 이에 밝으면 “斯可與論至和之道”라고 하였다. 天府, 歲會, 太乙天府를 논하고 나서 다시 명확하게 지적하기를 “是皆上下相邁하고 寒暑相臨하며 氣

相得而和之候耶인저 良工審劑調經과 明標探本이 宜悉意于此오 況夫六化分治와 五味五色所生과 五臟所宜가 皆消息盈虛繫焉이니 曾未洞達이면 而曰能已人之疾이 可乎아”라고 하였다. 최고의 통치자로서 運氣에 통달하지 못하면 “已人之疾”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당시의 醫師들이 運氣를 열심히 배웠을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다.

皇帝의 창도하에 北宋醫學界는 運氣를 醫學의 최고자리에 놓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聖濟總錄》의 配列에서 증명할 수 있다. 《聖濟總錄》은 徽宗政和年間(1111~1117년)에 정부가 전국의 名醫들을 모아 민간의 驗方을 광범위하게 모으고, 內部에 所藏된 秘方을 기초로 편찬된 醫學巨著로서 모두 200권이다. 첫머리에 運氣를 배열하고 다음에 徽宗帝가 《聖濟經》에서 지었던 “補遺”와 “治法”을 나열하였고, 다음으로 藥品, 湯散, 禁忌, 鍼灸, 符禁 등 十八論을 羅列하였는데, 疾病治療學總論의 성질에 해당하며, 以下는 各論에 해당된다. 各論中에서는 病을 六十六門으로 나누었다. 每門마다 論과 方이 있는데, 方을 爲主로 하였고, 二萬首 가깝게 수록하여 宋代 최대 규모의 方書가 되었다. 運氣에 대한 논술은 육십년의 氣運盛衰, 客主加臨 등의 상황을 순서대로 도표로 표시하고, 中央은 大運과 그 盛衰를 배치하고 바깥쪽에는 客氣司天, 在泉, 左右間氣를 배열하였으며, 다시 主氣六步를 對應시키고 가장 바깥쪽에 二十四節氣를 쓰고, 子丑寅卯로 달을 표기하였다. 달, 節氣와 主氣의 사이에는 六步로 나누어 각 氣位의 기후특징과 災變을 밝혀 그해 六步六氣의 대체적인 정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고, 다 쓸수 없을 때는 그림 아래에 다시 글로 설명하였다. 무릇 기운의 淫鬱勝復, 기후의 反常과 雩災, 질병의 病機·病態·證治要點·藥食宜忌 등을 하나하나 기술하였다. 매년마다 그림 하나와 한 문장으로 六十개의 그림이 甲子一周를 이룬다. 끝아가서는

다시 “氣運가 雖有定數나 猶有變焉”을 지적하였다. 變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문장에서 지적하기를, 하나는 氣와 位에 원래 일정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쌓이면 異常氣變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두번째는 氣에 勝復이 있기 때문이다. 일년중에 “歲半之前爲淫勝 歲半之後爲鬱復”이라하여, 天氣, 地氣, 左右間氣에는 각기 相勝과 反勝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勝復의 發作은 勝이 있으면 반드시 復이 있는 것으로 “凡有所鬱而進退升降皆不能也”라고 하였다. 세번째로는 氣運에 制化和 兼化的 變이 있기 때문이다. 病의 發作에는 從本, 從標, 從中見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기후 상황과 發病情況이 六步로 추산한 것과 모두 같지 않은 것이다.

《聖濟總錄》은 훌륭하고 방대한 저작으로 運氣를 맨 앞에 놓아 諸病의 우선으로 세웠으니 運氣를 중시했음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皇帝의 창도와 정부의 보급, 考試의 시행으로 인하여 運氣는 전국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國家도 각종 경로를 통하여 運氣지식을 보급하였다. 예를 들어 氣運曆을 반포하고, 그 曆書의 앞에 그 해의 氣運狀況을 명시하여 전국의 각계층이 모두 알도록 하고, 또 官私藥坊으로 하여금 “司歲備物”하게 한 것 등이다. 이렇게 運氣는 醫學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通行하여, 運氣와 醫藥理論이 깊게 결합하는데 필수적 조건을 만들었다.¹³⁾

4. 陳言의 三因極一病證方論

남송시기에 陳言(字 無擇 浙江 青田人)은 淳熙 2年(1174年) 《三因極一病證方論》을 지었는데 여기에서 五運이 太過不及할때와 六氣

가 司天 하여 일으키는 바의 병증에 대한 16首의 처방을 상세하게 나열하였다. 이중 10首는 五運이 太過하거나 不及해서 일으키는 것을 치료하는 방제이고 6首는 六氣의 병증을 치료하는 방제인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六壬年 歲木太過 蒼朮湯 治脾胃感風
- 六戊年 歲火太過 麥門冬湯 治肺經受熱
- 六甲年 歲土太過 附子山茱萸湯 治腎經受濕
- 六庚年 歲金太過 牛膝木瓜湯 治肝虛遇歲氣
- 六丙年 歲水太過 川連茯苓湯 治心虛爲寒冷所中
- 六丁年 歲木不及 菴蓉牛膝湯 治肝虛爲燥熱所傷
- 六癸年 歲火不及 黃芪茯苓神湯 治心虛挾寒
- 六己年 歲土不及 白朮厚朴湯 治脾虛風冷所傷
- 六乙年 歲金不及 紫菀湯 治肺虛感熱
- 六辛年 歲水不及 五味子湯 治腎虛坐臥濕地
- 辰戌之歲 靜順湯 治辰戌之歲 太陽司天 太陰在泉
- 卯酉之歲 審平湯 治卯酉之歲 陽明司天 少陰在泉
- 寅申之歲 升明湯 治寅申之歲 少陽相火司天 厥陰風木在泉
- 丑未之歲 備化湯 治丑未之歲 太陰濕土司天 太陽寒水在泉
- 子午之歲 正陽湯 治子午之歲 少陰君火司天 陽明燥金在泉
- 巳亥之歲 敷和湯 治巳亥之歲 厥陰風木司天 少陽相火在泉¹⁴⁾

13) 상계서 pp235~238

14)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64~

陳言은 각 處方의 適應證과 藥物의 구성을 서술했을 뿐만 아니라 각 처방마다의 劑型, 用量, 炮制 및 煎服法을 상세히 밝혔다. 6首의 六氣致病을 治療하는 방제에 대해서는 매 방제마다 일련 各步의 藥物加減法(各步의 主客之氣不同)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는 運氣學說의 치료원칙을 처방에서 구체적으로 화한 것으로 《元和紀用經》의 뒤를 이어 進一步하여 運氣治療學說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활용하는자는 융통성 없이 여기에 너무 얽매어서는 안될 것이다.

VI. 結 論

宋代 運氣學에 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王冰이 運氣七篇을 素問에 補入한 762년부터 인종 嘉祐 2년 校正醫書局에서 醫書를 校正하기 시작한 1057년 까지 근 300년간 運氣學說은 正統醫學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 宋代에 運氣를 연구한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인물은 仁宗때의 郝允이며 그의 제자인 趙宗古가 郝允의 “六元五運”法을 그림으로 그려 조정에 바쳐 세상에 퍼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3. 宋代에 運氣學이 흥성한 원인은 王冰本 素問이 校正醫書局의 校正을 거쳐 大醫局의 教材로 활용되고 運氣가 의사를 선발하는 시험 과목으로 선정되면서 부터라 할 수 있으며 劉溫舒의 《素問入式運氣論奧》의 저작과 徽宗皇帝의 篤信과 普及에 힘입은바 크니 “運曆”의 公布와 《聖濟經》, 《聖濟總錄》의 저작이 이것이다.

4. 宋代 運氣學 興盛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으로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사물의 본

질을 탐구하려는 송대의 학문적 경향과 의학의 전수과정에서 形而下學의인 傳承이 단절되어 필연적으로 허무한 五運六氣설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주장한 謝觀의 주장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5. 楊康侯는 神通論에서 六氣의 終始를 大寒으로 잡는 이론을 처음으로 밝혔고 沈括은 運氣學說을 응용할 때 定法만을 집착하지 말고 常變의 논리로 變通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運氣學說을 운용하는데 중요한 이론이 된다.

6. 劉溫舒의 《素問入式運氣論奧》는 運氣7篇을 계승하여 運氣學說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뛰어난 저작으로 運氣學의 典範이 되어 후세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

7. 陳言의 《三因極一病證方論》은 五運의 太過 不及과 六氣가 司天하여 일으키는 병증을 치료하는 16首의 처방과 가감법을 기술하고 있는데 비록 상투적이고 고정된 폐단을 면할 수가 없지만 運氣學說을 처방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의의가 있다.

VII. 參考文獻

1.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 謝觀 中國醫學源流論 臺北 進學書局 1970
3. 王琦等著 運氣學說的研究與考察 北京 知識出版社 1989
4. 劉伯驥 中國醫學史上冊 臺北 華岡出版部 1974
5. 李經緯 林昭庚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6. 任應秋 運氣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7. 陳夢雷勅纂 醫部全錄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9

8. 陳存仁編校 皇漢醫學叢書 丹波元簡 醫剩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9.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
社 1983
10. 洪元植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